

# 당신의 '나주 9경' 뽑아주세요

반남고분군·나주읍성·황포돛배·도래 한옥마을 등  
9일까지 시민·관광객 대상 후보 23곳 중 9곳 엄선

나주시가 민선8기 시정 핵심 목표인 500만 관광 시대 실현의 첫 단추로 대표 관광명소 '나주 9경'을 선정한다.

나주시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잘 알려진 지역 관광명소 23곳 중 9곳을 엄선하는 '나주 9경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주 9경' 후보지로 이름을 올린 23곳은 전문가 자문과 2022년도 한국관광데이터랩 나주시 인기 관광지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반남고분군, 4대문·금성관·나주향교·나주목사내아가 위치한 나주읍성, 영산강 등대와 황포돛배, 영산포 근대유산, 나주영상테마파크, 도래 한옥마을, 불회사 등 2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나주의 역사문화 관광명소가 후보지 리스트에 올랐다.

또 금성산, 나주호, 산림자연연구소(빛가람 지류의 숲), 동강 느리지전망대, 한수제·백통제·태평사 벚꽃길, 영산강 유채꽃밭, 우습제 흥련, 나주평야

(다시들녘), 드들강 솔밭 유원지, 불회사 비자나무 숲, 나주배꽃들, 가야산·일봉암 일출 등 천혜 경관을 자랑하는 생태 관광자원도 두루 포함됐다.

설문 참여는 나주관광 누리집 팝업창에 게시된 사이트 링크 접속(<https://naver.me/Gyy8WTTX>) 또는 QR코드(사진) 스캔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최대 5곳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주관식 설문을 통해 23곳 후보지의 숨겨진 관광명소도 추천받는다. 조사 결과는 이번 달 선정 예정인 나주 9경 최종 평가·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나주관광 기념품(20명), 커피 쿠폰(30명)을 증정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에 대해 관광객과 시민의 취향과 눈높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나주 대표 관광 명소 육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46년 된 장흥군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주차장·업무공간 부족  
2025년 착공 목표

장흥군이 46년 된 군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착공 목표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군은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고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장흥군 청사(사진)는 지난 1977년 준공됐으며,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왔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주차장과 업무공간이 부족했다.

장흥군은 지난 2월8일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를 꾸리고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청사 위치와 규모 등 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결정했다.

추진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신축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역민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다.

새로운 청사에는 작은 규모의 놀이방과 광장, 주민 편의 복합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방정이다. 이후 실시설계 공모에 착수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반영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군민 공감, 소통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 물절약 빛났다...3가구 중 1가구 요금 감면 혜택

최근 3개월 사용량 조사  
물 27만 1685t 절약  
6월까지 절감가구 13% 할인

화순지역 3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개월간 물 1년 전보다 27만 이상을 아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절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최대 13%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정

책은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

최근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5만889건 가운데 33.7%에 해당하는 1만7161건이 1년 전보다 사용량이 줄어든 사례였다.

물 사용량을 줄인 가구들은 모두 27만1685t 상당 물을 아껴 썼다. 금액으로 따지면 8700만원 상당이다.

이 기간 요금을 가장 많이 감면받은 가구(사업자)는 200만원 정도 혜택을 봤다.

화순군은 가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지역민 물 절약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가뭄 요금 감면제'를

추진했다.

화순지역 주요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 저수율은 지난 4일 기준 각각 17.6%와 19.8%이다.

가뭄 수준이 '심각' 단계로, 현재 소비량을 고려하면 주암댐 물은 5월, 동북댐은 6월 고갈될 것으로 화순군 측은 예상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행정 차원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군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가뭄 요금 감면제 혜택을 널리 홍보해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장성 특산물 인터넷 장터 '장성물' 개장

사과·쌀·유기농 야채 등 다양  
신규 가입자에 2000원 적립금

장성군이 4일 공식 온라인 쇼핑몰 '행복한 만남, 장성물' 문을 활짝 열었다.

'행복한 만남, 장성물'은 전국 누구나 인터넷만 접속하면 손쉽게 장성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장터다.

죽령산, 백암산 등 깊은 산에 둘러싸인 장성군이 자신 있게 내놓는 명품 과일과 육류, 가공식품, 특산품이 풍성하다.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장성물'을 검색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농산물', '수산

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 선물세트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행복한 만남, 장성물'에선 사과, 쌀, 유기농 야채, 새싹삼, 갈치숙젓갈, 청어알 비빔젓갈, 농협 안심훈돈, 천연 벌꿀, 김치, 야채주스, 백향과 청간식, 수제떡갈비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로 만든 조리도구와 큐브베게 세트 등 생활용품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장성군은 장성물 개장을 기념해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2000원의 적립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최초로 선보인 '행복한 만남, 장성물'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상품 개발과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장성물 신규가입하고 적립금 최대 2,000원 받아가자!**

신규가입하고 SMS수신동의하면 500원 추가 적립!  
(신규 가입 1,500원 + SMS수신동의 500원)

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 추월산 벚꽃길 걸으며 봄 만끽



담양 추월산 전경. (담양군 제공)

8·9일 벚꽃광장 일원서 축제

'벚꽃과 딸기의 만남'이란 주제로 제9회 추월산 벚꽃축제가 8일과 9일 이틀 동안 담양군 용면 청년회 주관으로 추월산 벚꽃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는 용면초교 드럼부 공연을 시작으로 관광객 노래자랑, 댄스공연에 이어 서지오, 민지 등 초대 가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딸기, 죽초액, 토종꿀, 산삼과 약초,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 판매장도 마련된다.

담양 용면 관계자는 "고온으로 벚꽃이 일찍 개화돼 축제 기간 전에 벚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강진 창업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희망자, 연중 수시 접수

강진군이 지역에서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4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강진군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 해야 한다.

군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점포 임대료를 지급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61-430-3081)로 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유례없는 물가상승 시기와 맞물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공모

'봄이 오면' 주제 14일까지 접수·28일 수상작 발표

조선의 천재 시인이자 당대 명문장가로 꼽히는 나주 출신 백호 임제(林樾) 선생의 작품 세계를 어린이 글짓기 문예경연이 펼쳐진다.

나주시는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7회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 작품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

글짓기 주제는 '봄이 오면'이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 복과 함께 찾

아온 새롭고 완연한 봄을 주제로 자유로운 형식의 글은 작품과 어울리는 그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림 작품 규격은 4절지 도화지로 수채물감, 크레파스,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도 된다. 글은 형식과 규격에 제한이 없다.

참가는 나주시를 비롯해 전국 어린이(만 6세 이상 12세 이하)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14일까지 백호문화관(나주시 다시면 회진길8)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10명) 등을 선정해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은 각 학교로 우편 발송되며 수상작들은 5월 백호문화관 기획전시실에 특별 전시된다.

대회 일정과 응모 절차 등 문의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공지사항)·SNS 또는 백호문화관(061-335-500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래 꿈나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시 찾아온 봄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